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5년 5월 15일(금) 조간
담당자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교육실장 (044-550-4603, jhshim@kdi.re.kr)
배포일시	2015년 5월 14일(목)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 경제교육관련 일반국민 여론조사

- KDI 경제정보센터는 경제교육 실태와 잠재 수요를 파악해 정부의 경제교육 추진 전략 및 지원체계 확립에 기여하고자 전국(제주도 제외)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sup>1)</sup>을 대상으로 ‘경제교육관련 일반국민 여론조사<sup>2)</sup>’를 실시함.
- 일반국민 약 33%만이 합리적인 경제활동 여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3%로 나타남.
  - 일반국민 96.9%가 학교 밖(사회)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국민의 대다수가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로 경제여건과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1)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3.1%p

2) 2015. 4. 17~4. 21,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통한 유선전화 조사

-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경제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초·중·고 라고 가장 많이 응답(48.4%)했음에도 해당 시기의 교육이 현재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1.4%에 달함.
- 국민 대부분이 학교 밖(사회)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많은 국민이 경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경제교육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추진전략 마련이 시급함.
- 특히 보다 많은 국민이 경제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교육 관련 정보 제공과 경제교육 시설 등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야 함.
  - 학교 밖 경제교육에 있어 정부 등 공공부문은 인프라 구축 및 민간 경제교육 기관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은 직접 경제교육을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는 등 효율성에 기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
  -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초·중·고 경제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실생활과의 연계성은 낮다는 국민 인식을 고려할 때 학교 경제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대별, 계층별 수요자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과 전달 방식 필요
-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소득·학력·나이에 따라 상이한 경제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반영해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함.
  - 아울러 경제지식을 습득하는 방식도 성별·소득·나이 등에 따라 다르므로 경제교육 수단의 많은 변화가 모색되어야 함.

❖ 첨부

## 경제교육관련 일반국민 여론조사 세부 결과

### 1) 경제활동의 합리성은 '보통 수준'

□ 일반국민의 43.9%가 본인의 경제 여건과 사회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함.

○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33.1%('매우 그렇다'12.8% + '약간 그렇다'20.3%)였으며,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23.0% ('전혀 그렇지 않다'7.4% + '별로 그렇지 않다'15.6%)였음.

### 2)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는 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습득

□ 일반국민의 44.4%가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에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V, 라디오 등 방송 매체'에서 경제지식을 얻고 있다는 응답은 36.7%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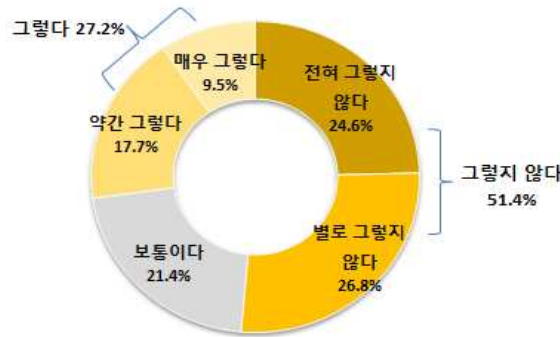
○ 고소득·고학력·청년 계층일수록 온라인 매체를, 저학력·저소득 계층일수록 TV·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입수한다고 응답

### 3) 청소년기에 경제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

□ 일반국민의 48.4%가 경제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를 '초·중·고 학생' 때라고 인식, 다음으로는 '대학생(25.5%)' 시기라고 응답

○ 그러나 일반국민의 과반(51.4%)은 초·중·고에서의 경제교육이 현재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젊은층일수록 초·중·고 경제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이 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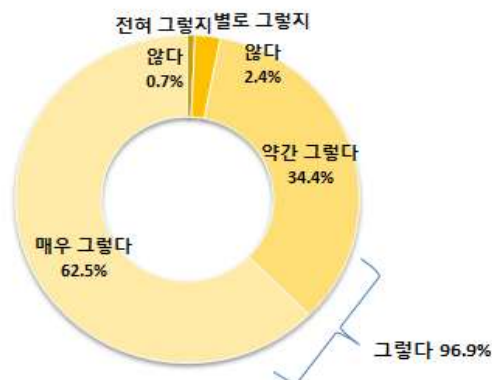
<현재 경제활동에 학교 경제교육의 도움 여부>



### 4) 국민의 절대다수가 학교 밖(사회)에서의 경제교육 원해

□ 일반국민의 96.9%(‘매우 그렇다’ 62.5% + ‘약간 그렇다’ 34.4%)가 학교 밖(사회)에서의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 없다’는 응답은 3.1%(‘전혀 그렇지 않다’ 0.7% + ‘그렇지 않다’ 2.4%)로 소수에 그침.

<학교 밖 경제교육의 필요성>



□ 학교 밖 경제교육 필요성의 이유로서 응답자(969명) 중 과반이 '경제 여건과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55.9%)'를 꼽음.

-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많아져서'라는 응답이 29.8%, '학교 경제교육이 불충분하기 때문에'는 14.2% 였음.

## 5) 학교 밖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은 많지 않아

□ 일반국민의 72.0%가 학교 밖(사회)에서의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8.0%만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학교 밖 경제교육 경험이 없는 응답자(720명)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많은 29.3%가 '경제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를, 다음으로 '인근에 경제교육 기관이 없어서(23.3%)'를 이유로 꼽음.
-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280명)자의 과반인 51.4%가 은행, 신문사, 사회교육원 등 민간기관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등 공공기관이 34.3%,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모두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은 14.3%로 나타남.

□ 학교 밖 경제교육 경험과 합리적인 경제생활 상관성 높아

- 설문 중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과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았던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자는 보통 이상(5점 척도에서 3.44)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경제교육 비경험자는 보통 수준(5점 척도에서 3.05)이라고 응답함.
- 이는 학교 밖 경제교육이 개인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냄.

6) 자산관리·금융·경제일반 순으로 경제교육 수요 많아

-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280명)를 대상으로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자산관리(43.9%)'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42.5%)', '경제일반(35.7%)', '투자(2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교육(11.4%)'과 '신용(7.5%)'에 대한 교육 경험은 낮았음.
- 일반국민에게 향후 가장 필요한 경제교육 분야는 '자산관리(28.4%)'와 '경제일반(21.9%)', '세금(12.4%)', '소비자교육(12.0%)', '금융(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7) 부족한 경제교육 인프라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 일반국민의 63.1%가 교육기관, 교육자료 등 현재의 경제교육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8.2%만이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기반이 충분하다고 응답
- 일반국민(85.0%)의 대다수가 경제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은행 등 민간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14.8%에 불과했음.

8) 정부, 민간 경제교육 기관 지원에 역점 뒤야

- 일반국민은 정부의 경제교육 역할에 대해 '민간기관의 경제적 지원(38.4%)'과 '강사양성, 교재개발 등 경제교육 기반조성(36.7%)'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반면, 정부가 '직접 경제교육을 실시(24.9%)'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임.